

이야기 카드 1

시험 10분 전

수학 시험 10분 전, 소율이 옆자리 친구들이 “이거 나온대!” 하며 소율이가 처음 보는 문제를 이야기한다. 소율이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린다. 아는 문제도 갑자기 다 잊어버린 것 같다.



이야기 카드 2

30분 전에 깨진 약속

태윤이는 친구와 토요일 2시에 영화를 보기로 했다. 영화관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“미안 오늘 못 가 ㅠ” 문자가 왔다.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. 태윤이는 폰을 꽉 쥐었다.



이야기 카드 3

세 번째 잔소리

현서가 학원에서 돌아와 겨우 소파에 앉았다. 엄마가 “휴대폰 그만 보고 방 좀 치워.”라고 오늘만 세 번째로 말했다. 현서는 오늘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았다. 이를 꽉 물고 한숨이 나왔다.